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유효 투표수의 48.7%를 획득해 26.1%를 얻은 정동영 후보를 가볍게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단순히 득표율의 차이만 컸던 것이 아니라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승리함으로써 내용적으로도 완승을 했다. 이 때문에 대선 후 4개월 만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후 2개월 만에 실시되는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은 내심 200석 이상의 의석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사실 한나라당의 기대가 과도한 것은 아니었다. 대선이 있는 지 1년 이내의 선거는 대통령의 후광효과(coattail effect) 때문에 여당이 유리하지만, 그 이후의 선거는 중간평가 효과(midterm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에 여당에 불리하다는 이론도 있고, 사회균열이 상당 기간 고정되기(fixed) 때문에 정당체계가 동결된다(freeze)는 이론도 있기 때문이다. 모두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얻은 표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국회의원선거에서도 표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하는 근거였다. 또 2004년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탄핵의 역풍이라고들 하지만 소수여당이 몸집 불리기에 성공하는 것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8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는 예상과는 상당히 달랐다. 한나라당은 기대 의석보다 약 50석이 적은 153석을 얻는 데 거뒀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의 실세로 알려진

인물들이 낙선의 고배를 마시는 이변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7대 대통령선거와 18대 국회의원선거의 결과가 단절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는데 성공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18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는 대통령선거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이와 같은 17대 대통령선거와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태도와 투표결정에 있어서의 연속성과 변화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누어진다. 제1부는 18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관련된 주요 이론적인 쟁점을 다루고 있다. 18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정당지지의 재편이 구조적인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16대 대통령선거와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급부상한 386세대가 연령효과인지 아니면 세대효과인지, 그리고 상충적 태도를 가진 유권자가 민주주의의 적인지 아니면 이상적인 유권자인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제2부에서는 4개월의 시차로 치러진 17대 대통령선거와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 투표결정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추적하고 있다. 지역, 이념, 세대 등과 같은 사회균열과 경제투표에 있어서 두 차례의 선거가 어느 정도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지

니고 있는지 고찰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을 고찰함으로써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나는 유사성과 상이성의 원인을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선거는 정당뿐만 아니라 의원의 의정활동, 후보의 자질 등과 같은 후보자 개인의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3부에서는 후보자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직효과와 의정활동이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있다.

이 책에 글을 실은 필자들은 모두 동아시아연구원 · 중앙일보 · SBS · 한국리서치가 공동 기획한 패널조사에 함께 참여했던 연구진이다. 패널조사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1년간 총 8회 실시되었기 때문에 두 선거 간의 연속성과 변화를 추적하기에 다른 어떤 연구보다도 많은 이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원표본수 3,503명이라는 국내조사로서는 이례적으로 큰 표본수에서 시작해 마지막 조사의 표본수를 1,153명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연구결과를 탄탄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특히, 두 선거의 시차가 4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의 연구를 더욱 흥미롭고 값지게 한다.

이 조사가 실시되고 또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숙종

원장을 비롯한 동아시아연구원 가족들의 노고가 가장 컸음을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2009년 4월  
필자들을 대신하여 김민전 · 이내영